

‘내 아이’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운다

부모 공동육아조합 만들어 운영...자연·친구와 함께사는 삶 체득

96.12.6

튼튼어린이집은 보통 어린이집과 사뭇 다르다.

도심이 아니라 경기도 과천시 야산 기슭의 널찍한 가정집을 빌렸다. 이런 곳에 어린이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따로 떨어져 있다. 마당의 미끄럼틀과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보고 들어서야 어린이집임을 알 수 있다.

분위기는 더더욱 다르다. 2살부터 7살까지 35명의 아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함께 어울린다. 선생님들과도 친구처럼 지낸다. 원장 선생님은 ‘몽실언니’, 유일한 남자 선생님은 ‘까마귀’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하지 않는다. 그림 그리거나 숫자놀이 등 놀 자리를 깔아줄 뿐이다. 그 자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모여 까리까리 놀고 배운다.

언니·오빠건 동생이건 관계없다. 그 속에서 나이에 따른 구실을 체득하고 대부분 아이가 한 두명인 가정에서 모자라기 쉬운 형제간의 우애를 깨친다. 공동체의 기본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이들에겐 정해진 규칙이 없다. 낮잠시간이 있지만 자기 싫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간에 자도 된다. 그러나 하루에 한번씩 서울 대공원이나 도서관 그리고 뒷산에 오르는 ‘나들이’ 만은 빼놓지 않는다.

급식도 가공식품은 절대로 피한다. 농민과 직거래하는 유기농산물 식품만 먹인다. 먹거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느낀다.

튼튼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8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가운데 한 곳이다. 부모들이 제대로 된 보육시설에 대한 아쉬움에서 공동육아조합은 출발했다. 부모들은 모두 조합원이고 일정한 출자금을 낸다. 기본적인 운영방향도 조합원인 부모들이 결정한다. 식단이나 교사초빙 따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조합의 교육방침은 당연히 다른 어린이집과 다를 수밖에 없다. 삭막한 시멘트 칸막이 세상을 벗어나 벽이 없는 세상 곧 자연의 공동체를 체득케 하는 것이 목표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마당이 있는 집’을 고집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도 하지 않으며 엄마들이 애달파 하는 영어교육 따위만 있지도 않다. 일반적인 조기교육 개념은 어디에도 없

대안교육이 열린다 8 튼튼어린이집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나이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나이가 다른 여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종근 기자

다. 그 대신 자연과의 하나되는 경험, 서로 믿고 함께 일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라면 구애받지 않고 받아들인다.

아람(5)이를 튼튼어린이집에 보내는 구소연(36·대학원생)씨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주저없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람이가 다니던 어린이집도 괜찮다는 평을 들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아람이는 “어린이집을 바꾸고 나서 잔병치레가 없어졌고, 내성적인 성격도 활발해졌다”고 구씨는 말했다.

그러나 공동육아조합을 운영하는 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에서 연리 8%에 은행융자를 해준다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자갚기에도 벅하다. 남들은 못받아서

안달인 은행 융자를 이들은 오히려 꺼리는 실정이다. 조합재정이 취약해 안정적인 공간을 찾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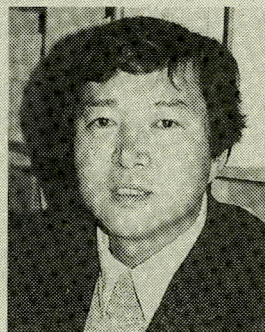
튼튼어린이집도 생긴지 1년만에 두번째 전세집을 찾아야 했고, 연남동 어린이집은 집주인이 부모를 내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왔을 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원하는 부모들의 열망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조합 관계자들은 자신한다.

“아이들 교육마저 돈벌이의 대상이 되버린 현실”과 “어른들이 망쳐놓은 자연,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사회” 등에 대한 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본준 기자

□ 공동육아연구원 대표 정병호씨



보육시설 부족 정부지원 절실

90년부터 공동육아조합 운동을 주도해온 공동육아연구원의 정병호(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공동대표를 만났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늘고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보육시설이 늘긴 하지만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안심할 만한 곳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교육현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공동육아조합의 어려움은.

=정부가 공동체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없어 법적·사회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시설로는 예외적으로 ‘임자가 없는’ 조합 형태여서 실무자들이 인·허가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은.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고수해서는 곤란하다. ‘보육’은 제대로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없는 비영리사업이다. 교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싸게 빌려준다면 민간의 자발적인 역량과 결합해 정부로서는 ‘큰 돈 안들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